

淸陰 金尙憲의 歷史 意識

— 詩文學을 중심으로 —

宋 喜 璟

<目 次>

- | | |
|-----------|-----------|
| I. 緒言 | III. 歷史意識 |
| II. 學問 淵源 | IV. 結語 |

<국문 초록>

청음 김상헌(1570~1652)은 정계에서 당파적으로는 서인에 속해있으면서, 인조반정 이후는 功西派에 대립하여 淸西派를 이끄는 領袖로 활동하며 정국을 이끌고, 학문적으로 기호학파의 성향을 띠고 성리학의 首長으로 당시 학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청음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국제 질서가 재편된 격변의 시대였다. 김상헌은 선조 대에 태어나 조선 초기부터 형성된 당파의 당쟁기와 임진왜란을 거쳐, 인조조의 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조의 커다란 사건이 연속되었던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가장 험난한 격동기를 온몸으로 맞서 확고한 소신과 행보로 사회적·정치적인 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편 광해군 대·인조 대를 거치며 兩亂을 통해 主和를 주장하는 최명길과 대치하여 끝까지 斥和를 관철했던 행적으로 인한 척화신으로서 자리매김은 학문적 성과의 평가가 소홀히 될 수 있으나, 일찍이 正祖는 『弘齋全書』에서 청음의 節義와 함께 학문과 문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 또한 40권 16책의

* 대전지족고등학교 교사 / 1013shk@hanmail.net

방대한 분량의 文集이 정치적 위상과 더불어 학문적 卓見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니, 뚜렷한 소신을 지니고 학문적 이념을 실천하고자했던 실천가로서 청음은 政·學 두 방면에서 위상이 확고했던 것이다.

그는 出仕 이후 進退를 거듭하였으나 평생 관직에 종사하며, 나라의 危難이 있을 때마다 榮辱을 함께 하였다. 國難이 있을 때마다 보여준 일련의 대응에서 그의 신념은 그대로 드러난다. 때로는 자기 혼자 명예를 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청나라 수도 瀋陽으로 압송된 이후 나타난 행적으로 오해를 풀기도 한다.

論者は 청음의 역사의식을 그가 남긴 문학 작품 가운데 詩作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역사의식 전반에 흐르는 의식 체계는 그의 학문세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性理學的 實踐儒學으로서 도학의 특징은 義理와 節義를 중시하며 당시 儒風을 주도하는데 청음은 이런 성리학적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현실을 인식하였던 것이며, 일생동안 자신의 학문적 신념에 진실하게 처신하며, 私利보다 公道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지식인의 참 면모를 보여주었다.

【주제어】 성리학, 도학, 충절, 역사의식, 척화신

I. 緒言

청음 김상헌(1570~1652)은 政界에서 黨派的으로는 西人에 속해있으면서 仁祖反正 이후 功西派에 대립하여 淸西派를 이끄는 領袖로 활동하며 政局의 핵심 역할을 하였고, 학문적으로 嶺南學派·畿湖學派의 대립이 지속되었던 시기에 畿湖學派의 성향을 띠고 성리학의 首長으로 당시 學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¹⁾ 정묘·병자 兩難을 거치며 최명길의 主和論 맞선 그의 강렬한 대응 방식은 후세 사람들에게 斥和派를 상징하는 인물로 각인시켰으며, 현재까지 ‘척화’는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

1) 金尙憲, 『淸陰集』, 「解題」. 참조.

한편 청음의 學風은 당시 主流를 이루던 道學이다. 도학의 ‘道’는 일상의 평범한 인간의 道이므로 도학사상의 관심은 현실에 있으며 생활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²⁾, 따라서 현실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갖추고 가장 적합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사의식을 갖는다. 道學派는 항상 시대 상황의 추이에 따라 그 시대의 제도 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역사 전개 과정에서 요구하는 끊임없는 창조성을 나름대로 최대한 발휘하여 왔다.³⁾

역사의식이란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과 책임의식을 말한다. 역사에 대한 비판 즉 褒貶은 일정한 가치관을 전제하거니와 유학에 있어서 포폄의 尺度는 ‘天理와 人慾’ 또는 ‘王道와 霸道’ 또는 ‘中華와 夷狄’으로 설정되고 있다. 또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은 ‘世道를 自任한다’는 의식으로서, 이 역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세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신으로 표출되는 것이다.⁴⁾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보잘 것 없는 유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고 현재를 토대로 미래가 이어지는 것이기에 지속되는 연속성에서 현재의 문제 해결과 진보된 미래의 열쇠가 있다는 점에서 재조명의 가치가 있다. 그러한 선상에서 본 연구의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청음은 절의를 고수한 척화파로써 역사적 위상과 함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으로써 학문과 문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명나라에 사신을 다녀오면서 펴낸 『朝天錄』⁵⁾의 序文을 지어준 명나라 재상 장면등⁶⁾

2) 『中庸』 1章,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論語』, 「憲問」 37, “下學而上達”

3) 오석원, 「19세기 한국도학파의 의리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11.

4) 이상익, 「우암 송시열의 역사의식과 화서학과」, 『우암논총』 5집,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11, p.4.

5) 1626년 성절 겸 사은 진주사로 북경에 다녀올 적에 지은 시문집(詩 136수, 文 14편).

6) 『淸陰集』, 「朝天錄序」, “숙도의 시를 읽어 보니, 일에 감응하는 바가 있고

과 예부시랑 이강선⁷⁾에게 시적 재능을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으며 그가 남긴 40권 16책의 방대한 분량의文集 또한 이를 입증한다. 다음 正祖의 그에 대한 글을 살펴보자.

淸陰 金尙憲은 바른 도학과 높은 절의를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도 공경하고 복종하였으니 문장은 나머지의 일일 뿐이다. 내가 그를 말할 때에 故相이라고 하지 않고 先正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날 致祭文에서 “그의 문장은 韓愈와 曾鞏이요, 그의 학문은 濂洛이다.”라고 한 것은 도학과 문장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동해의 물과 西山의 고사리, 잔 들어 祭享하니 맑은 모습 이와 같도다.”라고 한 것은 節義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⁸⁾

正祖는 청음의 문장을 韓愈와 曾鞏에, 학문은 濂洛⁹⁾에 비유하며 주렴계와 장재, 정이친·정명도를 이은 正脈으로 보고 학자로서 최고의 존칭인 先正을 사용하여 문장과 함께 학문적 업적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한편 청음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국제 질서가 再編된 激變의 시대였다. 청음은 이 시기 國內·外的으로 가장 험난한 激動期를 온몸으로 맞서 확고한 소신과 行步로 國難이 있을 때 마다 신념은 일련의 對應方式으로 표출되며, 사회적·정치적인 면에서

정에 함치되는 점이 있었다. 정신이 경물과 더불어 함치되고 기운이 뜻에 따라서 퍼졌으며, 높이 올라갔으나 조화를 헤치지 않고 억제했으나 격식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너그럽고 온화한 韻이 있고 시들고 처지는 힘이 없었다.”

- 7) 『淸陰集』, 「朝天錄序」, “音律이 樂器가 울리는 듯하고 對偶가 金石과 같이 단단한 데에 이르러서는 소리가 숲 속을 진동시키고 메아리가 구름까지 달는 아취가 크게 있었다.”
- 8) 正祖, 『弘齋全書』, 「日得錄」, “金淸陰道學之正 節義之高 不獨我國之所尊慕 抑亦淸人之所敬服 則文章特其餘事耳 予於稱道時 不曰故相 曰先正者此也 向來致祭文中 其文韓曾 其學濂洛云者 指道學文章也 東海之水 西山之薇 舉以 酌卿 淸標是似云者 指節義也”
- 9) 周敦頤와 程顥·程頤를 대표하여 부르는 것으로, 이들이 살던 지역이 각각 濂溪·洛陽인 데서 유래.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 때로는 時流와 타협하지 않는 행동이 명예를 구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으나, 청으로 압송된 이후 나타난 진실된 행적으로 오해를 풀기도 한다.

청음에 대한 선행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연구되었다고 본다. 하나는 사상사적 측면에서 성리학적 의리사상을 부각시킨 내용의 논문과 다른 한 가지는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시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문학연구가 그것이다.

청음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하진규¹⁰⁾가 문학관과 생애적 상황에 따른 작품 내용의 변이를 소개하면서부터이다. 첫 시도의 의미는 있었으나 시세계를 소략하게 다룬 한계점을 드러냈고,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경미¹¹⁾에 의해서이다. 卽景詠物, 思鄉客愁, 懷古回想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청음 시의 성격을 구명한 점은 인정되나 시세계를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다.¹²⁾ 또한 문학 연구는 제주도에 안무어사로 파견된 시기에 지은 기행문 『남사록』¹³⁾ 연구에 편중된 감이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사를 개괄했을 때 文·史·哲에서 주로 시문학 연구¹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사상사와 역사학 연구는 다소

-
- 10) 하진규, 「淸陰 金尙憲의 生涯와 文學」,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1) 김경미, 「淸陰 金尙憲 詩 研究」, 『연세어문학』 21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 12) 김하윤, 「淸陰 金尙憲의 漢詩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3.
- 13) 왕소명,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상순, 「청음 김상헌 『남사록』 연구」, 충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부영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고찰」, 『탐라문화』 제2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황만기,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작가 의식」, 『동방한문학』 36집, 동방한문학회, 2011.; 홍기표,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 소재 기사 오류 및 쟁점」, 『한국사학보』 40집, 고려사학회, 2010.
- 14) 조명주, 「雪窩酬唱集을 통해 본 淸陰 金尙憲의 詩 研究」,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황만기, 「안동 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헌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김하윤, 「淸陰 金尙憲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사 연구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살펴보면 역시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¹⁵⁾가 있고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는 박세한의 지천 최명길과 비교논문¹⁶⁾이 유일하다. 그 원인을 推考하면 그의 문집의 작품 절대량이 시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당시 학자들에게서 성행되었던 理氣心性論의 철학 사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로 연구 방향이 시의 내용 분석에 편중된 듯 보인다.

그는 당시 학자들이 심취했던 理氣心性의 이론적 연구보다 학문적 신념체계를 지니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삶을 추구한 듯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의 삶 자체가 역사의식의 구현이라 볼 수 있다. 연구 논문이 20여 편으로 그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 문학 연구에 쏠리는 경향 속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각도를 달리하여 문학과 역사관의 접점으로써 작품을 분석하여 시에 표출된 역사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청음의 문학에 대한 입장은 ‘詞章’이 아닌 ‘載道’이기에 작품 속에서 역사의식을 도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문집¹⁷⁾을 자료로써 연구하는데, 먼저 II장에서는 역사의식의 基底 學問淵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간의 삶을 통찰하기 위한 학문과 사상 연구가 先行되어야 함은 인간의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의 疏筭 考察, 『語文研究』 72집, 어문연구학회, 2012.; 「清陰 金尙憲의 遊仙詩 小考」, 『語文研究』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清陰 哀悼詩에 나타난 슬픔의 形象化 方式」, 『語文研究』 74집, 어문연구학회, 2012.; 「金尙憲 漢詩에 사용된 ‘惆悵’의 쓰임새 考察」, 『語文研究』 78집, 어문연구학회, 2013.; 「清陰 金尙憲의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윤승준, 「청음 김상헌 「관동별곡」 번사에 대하여」, 『漢文學論集』 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 15)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앞의 논문, 2011.
- 16) 박세한, 「金尙憲과 崔鳴吉의 哲學思想과 歷史意識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7) 本稿의 연구 텍스트는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2006년에 간행된 『國譯 清陰集』으로 한다.

학문과 사상에 기초한 세계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III장에서는 시에 형상화된 역사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 청음의 역사의식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현대적 의의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어 세 가지 이외의 항목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

II. 學問 淵源

1. 道學 思想

청음의 字는 叔度, 호는 淸陰, 石室山人, 西礪老人, 시호는 文正이다. 선조 대에 태어나 조선 초기부터 형성된 당파의 당쟁과 임진왜란을 겪고, 인조조의 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조선조의 커다란 사건이 연속되었던 시기를 살다가 한 시대를 상징한다. 특히 光海君代·仁祖 代를 거치며 明·淸이 교체되는 와중에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며 主和를 주장하는 최명길과 대치하여 항복문서를 찢고 끝까지 斥和를 주장했던 조선중기 학자이자 정치인이며 관료문인이다.

청음은 9세에 生父 都正公 金克孝에게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가정에서 초학을 시작하였다. 講學 활동과 師友 관계에 대한 기록은 1636년 자신의 문집 草稿를 정리하면서 기록한 自敍에 나타나 있다.

할아버지인 林塘 相國을 섬기며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자 큰형님인 仙源 선생과 堂兄인 休庵 선생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 점차 나아갈 바를 알게 되었다. 그 뒤 열여섯 살 때 尹文敬公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였고, 또 玄軒 玄軒申公 申欽, 月沙李公 李廷龜, 西垞柳公 柳根의 門下에서 노닐면서 들은 바를 더 넓혔으며, 鶴谷洪公 洪瑞鳳, 東岳 李子敏 李安訥, 竹陰趙怡叔 趙希逸, 谿谷張持國 張維 등과 서로 切磋琢磨하였다. 蘭臺와 石渠를 출입하면서도 金匱안의 장서를 펼쳐 보고 寶笈 안의 秘書를 엿보았다.¹⁸⁾

그의 학문의 연원은 家系에서 살펴볼 수 있다. 16세에 윤근수(1537~1616)에게 나아가 受學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外祖 父인 임당 정유길, 병자호란 때 순국했던 伯兄 선원 김상용(1561~1637)과 堂兄 휴암 김상준(1561~1635)에게 도움을 받아 初學이 시작되며 玄軒 申欽, 月沙 李廷龜, 西炯 柳根, 鶴谷 洪瑞鳳, 東岳 李安訥, 竹陰 趙希逸, 白沙 尹暄, 澤堂 李植 등과 함께 학문을 從遊한다.

그의 學脈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은 청음은 당시 세간에서 뛰어난 문장가들을 名稱했던 ‘四大家’인 이정귀·신흠·장유·이식과 모두 각별한 친분을 갖고 交遊하였고, 또한 그와 交遊했던 다른 인물들이 모두 當代 뛰어난 문장가·관료들로 網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位相이 政界 뿐만 아니라 學界에서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인들과 관계는 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序跋文·碑銘·挽詩와 그들과 함께 酬唱한 詩를 통해 그 交遊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청음의 학문의 성향을 살펴보자. 16세기 사림파의 학문은 도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청음의 학문세계는 時流와 무관하지 않게 도학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16세기 조선 사회는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치적인 면으로써 政界의 움직임이었다. 집권 士大夫 계층인 勳舊派와 종래 在野 士大夫 層으로서 새로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士林派의 대립이었다. 그들의 대립은 여러 차례 걸친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그때마다 사림파는 일반적으로 慘禍를 당하게 되어 이후 鄉里로 돌아와 학문의 연구와 후진의 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문은 性理學의 理氣說을 통해 밝혀진 道의 實踐躬行으로 완전한 인간에 도달하려고

18) 金尙憲, 『清陰集』 卷1, 「清陰草稿自叙」, “逮事外王父林塘相國 獲承警咳 伯氏仙源先生 堂兄休庵先生勤加提誨 稍稍知向方 十六謁尹文敬公請益 又游玄軒申公 李公 西炯柳公之門 以廣所聞 與鶴谷洪公 東岳李子敏 竹陰趙怡叔 谿谷張持國相切劘 通籍蘭臺石渠 探金匱之藏 窺寶笈之秘”

노력하는 ‘道學’이었다. 道學은 性理學보다 實踐躬行을 중요시하여 義理와 節義를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학은 ‘性理學的 實踐儒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勳舊派에 대한 비판의 연장이요 抵抗의 외적 표현으로써 도학은 사람에게 크게 공감을 주어 16세기 사림의 학문을 지배하게 된다.¹⁹⁾

또한 도학은 ‘宋代’에 체계화된 新儒學으로 ‘君子之學’을 지칭한다. 성리학은 도학을 精密하게 이론화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원리와 실천의 문제가 구분되어 설명한다면 도학은 존재와 당위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理와 氣가 중심개념인 성리학에 비해 도학은 道가 중심 문제가 되어 行적인 측면이 兼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율곡이 人倫性을 떠나서 도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現實的 特性’과 관련된 표현이라 하겠다.²⁰⁾ 『인조실록』에 청음의 도학자적 面貌를 찾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김상헌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言動이 節度에 맞고 안팎이 순수하고 발라서 精金이나 美玉과 같았으므로 바라보면 凜然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뜻으로 범하지 못하였고, 문장도 굳세고 뛰어나며 고상하고 오묘하여 옛 글 짓는 법에 가까웠다. 조정에서 벼슬한 이래로 처신이 구차하지 않고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배척당하였으나, 利害와 禍福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광해 때에는 폐기되어 田野에 있었는데, 反正한 처음에는 喪中이기 때문에 곧 등용되지 못했다가 상을 마치자 맨 먼저 이조 참의에 除拜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諫長에 除拜되니, 사람들이 다 그 풍채를 사모하였다.²¹⁾

사람됨이 단정하고 절도에 맞으며, 문장이 뛰어나고 고상함을 갖추고

19) 이원균, 『조선시대사연구』, 국학자료원, 2001, p.38.

20)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문화, 2003, p.43.

21) 『仁祖實錄』 卷6, 「2년 8월28일 경술」, “尙憲 爲人端方介潔 言動中節 表裏粹正 如精金美玉 望之凜然 人不敢干以私 文章亦勁援高妙 逼於古作者 立朝以來 行己不苟 嫉惡如讐 以此屢遭擯斥 而不以利害禍福動其中 光海時 廢處田野 反正初 以居憂未卽登用 服闋 首拜史議 至是拜諫長 人皆想望其風采”

사람을 사림에 利害 관계와 禍福에 좌우되지 않는 처신은 도학자의 典型이라 할 때 청음에게서 垂範적인 도학자의 면모가 感知된다. 안향의 「畫像贊」에서 그의 성리학에 대한 인식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다.

| | |
|---------|---------------------------------|
| 當麗政蔑教之日 | 고려조에 학문 멸시하던 때 당해 |
| 倡衛道興學之議 | 도학 흥기시킬 의논 주장하였네 |
| 率勵頽俗 | 퇴폐해진 풍속 앞서 가다듬었고 |
| 振揚儒風 | 유학 풍조 진작시켜 떨치게 했네 |
| 庠序煥然 | 교육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매 |
| 衿紳改容 | 선비들의 얼굴 모습 바뀌어졌네 ²²⁾ |

안향(1243~1306)은 젊은 시절 지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종교와 미신의 弊害를 깊이 느끼고 그 해결책을 유학에서 찾는다. 그러나 先秦유학의 고전인 六經에는 한계를 갖고 있던 중 元나라에 가서 『朱子全書』를 접하고 사상적 충격을 느낀다. 그는 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귀국한 뒤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널리 보급하여 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크게 일으킨다. 청음은 麗朝 안향이 당시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고, 도학의 학풍을 振作시켜 백성들을 教化시킨 功을 드러내어 顯彰하였다. 다음은 그의 조선 도학의 脈에 관한 언급을 보자.

먼저 李穡과 鄭夢周가 理學을 밝혀 위급한 고려 말기의 국운을 연장시키고, 이어 우리 조선조의 문명을 창설하였습니다. 金宗直과 金宏弼과 鄭汝昌 등이 실로 도학을 밝혔으며, 趙光祖를 등용하여 씬으로써 백성들의 習俗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²³⁾

청음은 안향으로 시작된 조선 도학이 鮮初 이색, 정몽주, 김종직, 김

22) 金尙憲, 『清陰集』 卷15, 「柳文成公의 畫像贊」.

23) 金尙憲, 『清陰集』 卷28, 「故義兵將贈史曹判書重峯趙先生神道碑銘」, “祖茲東土 所賴以知君臣父子之道者 儒賢輩出 先有李穡 鄭夢周 講明理學 用延麗季之危急 繼肇我國之文明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寔倡道學 趙光祖登庸 民俗幾變”

굉필, 조광조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도학은 堯舜이래 孔·孟에서 周敦頤와 張橫渠, 程顥·程頤, 朱子를 거쳐 鮮朝에 이르러 위의 系譜를 道統의 定說로 여기는데 正統論을 중요시하는 도학의 學風에 기인한다.

한편 사람의 실천적 학문 특징은 小學으로 典範을 삼는 것이다. 주자가 「題辭」에 小學의 교육요점을 灑掃·應對·入孝·出恭의 ‘일상적 도리’를²⁴⁾ 표명했듯이 小學 중시 학풍은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사대부들의 수행론과 脈을 같이 한다. 清陰年譜²⁵⁾의 기록에 그의 持敬 위주의 小學 공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外職에 근무하며 한가할 때마다 小學 공부에 얼마나 매진하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知行合一의 경지를 추구하며 실천 없는 말 뿐인 이론을 경계하는 확고한 학문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 節에서 청음의 小學 중시 철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小學 中心의 實踐 哲學

그의 學問 體系는 주자학에 기초하고 일상의 修行은 소학으로 遵據 삼았는데, 이는 송시열이 지은 그의 「墓誌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생은 天稟이 매우 고상하여 어려서부터 『小學』을 즐겨 읽었고 평생 受用함이 이 밖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大要는 持敬과 力行으로 主를 삼아 가정에 있을 때는 그 도리를 곡진히 하여 倫理는 반드시 바르게 하고, 恩義는 반드시 독실하게 하였으며, 조정에 들어와서는 임금 섬기기에 예를 다하여 털끝만큼도 예사로이 넘기지 아니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감에 있어서 어렵고 쉬운 절차는 하나 같이 晦翁 朱熹의 遺法을 따랐다. 대개 그 道는 修身·齊家로부터 미루어 나갔

24) 朱子, 「小學題辭」, “小學之方 灑掃應對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詠歌舞蹈 思罔或逾”

25) 『清陰年譜』 卷1, “선생 나이 33세 주문공의 소학을 읽었다. 정인홍의 사건에 연루되어 외직에 근무면서 時務가 적어 날마다 『小學』을 읽었는데 수백 번이었다. 선생께서는 평소 이 책에서 힘을 얻은 것이 많았으며 한결같이 持敬을 위주로 하였다.”

으므로 本末이 겸비되고 內外가 다 이루어져서, 말로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²⁶⁾

사림의 소학 중심의 실천 철학은 주자학을 수용할 당시 주자학을 元學으로 굳힌 학자 원나라의 ‘魯濟’ 학풍의 영향이다. 元 許衡 학풍의 소학 중심의 실천철학은 조선 초 우리의 성리학풍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김굉필이 스스로 ‘小學童子’라 칭하며 소학을 기초로 한 유교적 규범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修己를 위주로 한 도학정신이 특히 이 때 소학의 중시로 드러났고 治人을 위주로 한 도학정신이 至治主義의 운동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이런 소학 중시 학풍은 김종직, 김숙자, 김굉필에 이어져 실천에 역점을 두어 ‘敬’을 기본 삼는 수양 방법으로 이론에 치우치기 쉬운 성리학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²⁷⁾ 이에 대한 내용이 송시열이 지은 『정암 선생 문집』 序²⁸⁾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소학과 함께 한국 유학에서 예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다르다. 儒敎立國을 표방한 조선시대에서는 고려시대의 불교의식에서 벗어나 유교의례로 정착시켜 사회의 윤리화와 예속화가 그 첫 과제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것이 『小學』과 『朱子家禮』이다. 『소학』을 새 사회의 윤리의 바탕으로 삼고 『주자가례』를 생활의례로 삼았다. 조선의 유학이 중국과 상이한 점은 예학시대(16c 말~17c) 하나의 단위가 설

26) 宋時烈, 『宋子大典』 卷182, 「石室 金先生 墓誌銘」.

27) 김제구, 「조선조 소학주의 전통연구」,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제39호 성리학일반(1), 불함문화사, 1996, p.369. 참조.

28) 宋時烈, 『宋子大典』 卷139, “고려 말기에 포은 정 문충공이 천 년 뒤에 奮發하여 비로소 皇極의 端緒를 탐구했는데, 그 학문은 실상 주자의 글에 근원하였다. 당시 주자의 글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와 사람들이 몰랐으나, 포은만이 홀로 그 근원을 궁구하여 그 학과에 游泳했고, 본조 寒暄堂 金宏弼에게 이르러서는 오로지 『小學』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가르치는 방법을 삼았으니, 학문의 本領을 체득한 湖學(송나라 胡瑗의 학과를 말함)과 비길 만하였다. 또 한 번 전하여 정암 선생에게 이르러서는 타고난 천성이 순수하여 조금의 하자도 없었고 일찍부터 성현의 학문 연원을 체득하고는 ‘학문이 아니면 도를 알 수 없고 도 아니면 다스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될 만큼 예학이 중요한 위치를 占한다. 禮를 實踐躬行할 뿐 아니라 禮를 위해 몸을 바치는 以道殉國에까지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禮訟을 둘러싼 대립과 정권에 가져올 만큼 조선 儒學史에 있어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儒學史에서 성리학과 예학은 실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양자는 그 內實과 표현 수단이라는 表裏관계가 되는 것이다.²⁹⁾

청음이 지은 牛溪 선생의 「神道碑銘」에 牛溪선생에 대한 기록을 보면 “喪을 당하자 3년 동안 廬墓살이를 하고 喪禮와 祭禮의 節文을 모두 小學과 家禮에 따라 행하였다”³⁰⁾고 한 것을 一例로 들 수 있겠다. 송시열은 “禮라는 것은 天理에 근본해서 人道를 紀綱하는 큰 단서가 된다.”³¹⁾고 하였다. 청음의 소학 중시 학풍은 인용 근거로서 『禮記』를 탐독하는 계기를 만들고, 『禮記』의 중요한 文句를 抄錄한 책 『讀禮隨鈔』를 만드는데 까지 이른다. 拔文에 책을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내가 젊어서 朱文公의 『小學』을 읽고서는 대략 거기에서 인용한 바의 『예기』 속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말들을 암송하였다. 그러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한 번 눈으로 훑어보기만 하고 익히지는 못하였다. 무오년에 친아버지의 상을 당해 애통한 마음이 몹시 크고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 실성한 탓에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기』 전질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전날에 한 바를 돌아보건대, 스스로 정성을 다하지 못하여 先王께서 예를 제정한 뜻에 죄를 얻은 것이 아주 많았다. 몹시도 부끄럽고 지극히 애통하였으나 죽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 이는 오로지 평소에 제대로 강습하지 않아 후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마음을 가다듬고는 분발해서 다시 끝까지 읽어 보고자 한즉, 이미 몸이 쇠하여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게을리 하다가 드디어 폐해 버리고 만다면, 또다시 스스로 천지간에 설 수 없게 될까 두려웠다. 이에 문득 『小學』에서 나온 것 이외에 스스로 도움을 받기에 절실하면서 꼭 알지 않아서는 안 될 것들을 직접 뽑아 기록하였다.³²⁾

29) 배상현,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제39호 성리학 일반(1), 불함문화사, 1996, p.197. 참조.

30) 金尙憲, 『淸陰集』 卷26, “及丁憂 廬墓三年 喪祭節文 悉遵小學家禮而行之”

31) 宋時烈, 『宋子大典』 卷139.

그의 『예기』에 대한 인식의 一端과 후세에 가르침을 남기고 싶은 마음을 서술하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청음의 저서에는 理氣心性論에 대한 철학적 내용은 없고, 청음의 학문 연원은 도학에 기반한다. 平時에는 자기 수양의 자세로 居敬窮理하였으며 國難이 있을 때는 의리사상에 입각한 사명감으로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다. 修己治人에 치열했던 도학자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Ⅲ. 歷史意識

그는 일생동안 자신의 詩文을 두 번에 걸쳐 自編해 놓았다. 첫 번째는 67세 되던 해인 1636년 양주 石室로 물러난 이후 그동안 지은 詩文을 정리하고 淸陰草稿子壻를 적어놓았고, 두 번째는 1645년 심양에서 돌아온 뒤 석실에 寓居하면서 심양에서 지은 시문을 『설교집』과 『설교후집』, 『설교별집』으로 정리하고 1636년부터 1640년 심양으로 갈 때까지 지은 작품과 1645년 이후에 지은 작품들을 차례로 정리하여 스스로 刪定하고 自編하였다.³³⁾

청음은 평생 1,684수의 시를 남긴다. 그중 심양에서 지은 시가 509수이다. 먼저 시를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처음 自編한 시는 평생 지속되었던 관직생활로 인하여 객지를 떠돌면서 부임지의 자연경관을 읊은 시와 고향을 그리는 객수를 읊은 시가 많다. 또한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부임지로 떠나는 지인을 송별하는 시도 다수 보인다. 전반적으로

32) 金尙憲, 『淸陰集』, 卷39, 「讀禮隨鈔跋」, “余少讀文公小學書 略誦所引記中諸要語 餘嘗一窺目而未習矣 戊午歲. 創鉅痛甚 迷亂失省 日久 乃始得抽繹記禮全書 顧其前日所爲 不能自盡 以得罪於先王之制者多矣 深慙至痛 死不可贖 顯由講習無素 以底于悔 欲奮厲卒業 則已衰頓難進 倦而遂廢 則又懼無幸於自立 輒手抄小學之外 切於資益而最不可不知者”

33) 金尙憲, 『淸陰集』 「解題」.

시의 基底에는 국가에 대한 公的인 사명감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통찰할 수 있다.

때로는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의 보상기제로써 귀거래의 심정을 읊기도 하고, 구도심의 열정으로 불교적인 선시를 짓기도 하는데, 寺刹詩와 함께 승려들과의 교류시도 눈에 띈다. 다른 한편 高潔하고 高雅한 세계를 동경하기도 하며 도가적인 신선 사상에 넘나들기도 하였다. 특히 할만한 점은 挽詩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挽詩는 당대 최고 문장가에게 부탁하여 짓게 하는 풍조에 따른 것으로 그의 사회적 위상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심양 압류기 6년 동안 지은 시는 節義詩와 고국을 그리는 내용의 향수를 읊은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酬唱 대상은 이 시기에 같이 끌려간 사람이다. 그의 문장에 대한 인식³⁴⁾은 詞章보다 載道에 중점을 둔 문학관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사람의 전형적인 문학관인 載道論을 堅持한다. 그의 시를 전반적으로 통찰하면 ‘시는 餘事’임을 천명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겨 사실 ‘문장가’로 칭해도 손색이 없다. 兩難이후 그의 시는 전란을 겪으며 즉각적으로 대응한 작품이 많아 역사의식의 端初를 살피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의 시에 드러난 역사의식을 분류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절의 사상 - 垂範的 인물의 形象化

우리 역사에서 人臣의 절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爭點으로 부각된 시기는 몇 차례 있었지만 麗末鮮初의 역성혁명시기와 세조의 왕위찬탈 사건이 대표적이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³⁵⁾라 했듯 難局을 절의의 시험기라 여겼다. 조선시대는 학자가 곧 문인이요 관리를 겸하는 특수

34) 金尙憲, 『淸陰集』 卷39, 「伯氏遺稿跋」, “又可以見君子之修辭 本於立誠 非詩家者流 徒尙詞藻而無其實者比也 後之人 其必有會於溫柔敦厚之教之所發歟”

35) 『論語』, 「子罕編」.

성 때문에 문학 역시 시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창작된다.

문인들은 성리학적 이념 강화에 부합되는 인간상을 문학 작품 속에 등장시켜 이들을 立傳하고 形象化함으로써 역사의식의 일면을 표출하기도 한다. 작가가 인물을 선택하고 작품 속에 형상화하는 창작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우선 개별 작가의 세계관에 基底한 人物捕捉視覺과 정신적 意識指向을 거론 할 수 있다. 작가가 거론한 인물을 통해 透映된 작가의 정신지향과 人物形象化의 시각이 확인되는 계기로 작용한다.³⁶⁾ 士大夫들은 詩文에서 殺身成仁·捨生取義하는 인물들이 주로 형상화 되는데 왕조교체기에 麗朝에 대한 節義의 상징으로 시에 주로 형상화되었던 인물은 圃隱이다.

청음의 시 문학 속에서 보이는 여러 인물들 중 절의의 표본으로서 형상화된 인물은 義理의 垂範의 인물들로, 포은 정몽주와 백이와 숙제, 초나라의 굴원과 한나라의 소무, 초나라의 종의 등이다. 심양 압송이전에 정리한 작품에서는 포은을 언급한 시가 몇 수(6수) 보이고 청나라 압송이 후는 한나라의 蘇武와 초나라의 종의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시점에서 形象化하였다. 문집에 나타난 포은에 대한 그의 인식은 우리나라 의리지학의 鼻祖라 여긴다.³⁷⁾ 그를 형상화한 7언 율시를 보자.

만월대(滿月臺)에서 차복원(車復元)의 운에 차운하다

| | |
|---------|------------------------|
| 有國誰能獨永年 | 나라 치고 어느 누가 홀로 영년 누리었나 |
| 前朝往事亦韞川 | 고려 시대 지난 일들 까마득히 잊혀졌네 |
| 花園殿廢春蕪合 | 화원 궁전 무너져서 봄풀들이 덮여 있고 |
| 公主碑荒野葛纏 | 공주 비석 버려져서 칙덩쿨이 감고 있네 |
| 節義圃翁千載仰 | 포은 응의 높은 절의 천 년토록 숭앙하고 |
| 文章牧老萬人傳 | 목은공의 좋은 문장 만 사람이 전하누나 |

36) 김옥규, 「한문학의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14-95. 참조.

37) 金尙憲, 『淸陰集』 卷23, 「鄭仁弘誣詆兩賢時政院啓辭」, “蓋我東方 自仁賢之化 既遠 其學不傳 至麗朝文忠公鄭夢周 始倡義理之學 逮入我盛朝”

山河似舊英豪盡 산하 모습 전 같으나 영웅들 다 죽었거니
 弔古登臨一愴然 대에 올라 조상하매 창연한 맘 드는구나³⁸⁾

고려의 도읍지 개성 궁궐터 滿月臺에 올라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느끼는 無常함에 대해 읊었다. 옛날 殷나라의 기자가 멸망한 고국의 도읍지에서 무너진 성터에서 무심히 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며, 덧없는 삶에 대한 悲感을 읊었다는 麥秀之嘆의 故事와 오버랩 되는 시이다. 永遠한 시간 속에 왕조의 興亡盛衰는 刹那에 불과한 世事의 단면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백년을 存立하였던 왕조의 도읍지에서 느끼는 시인의 虛無한 마음은 한 때의 榮華를 뒤로 하고 궁전을 덮은 봄풀과 공주의 비석에 영긴 畵寧窟의 황폐함의 극적인 대비로 더욱 倍加되어, 삶의 悔恨이 極大化 되어 있다.

5구에서 청음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월 속에 大義를 崇仰하는 정신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의 허무한 人間事와 후반부의 영원한 정신적 가치를 대비시켜 절의의 가치를 높이 드러낸 시이다. 누구나 화려한 시절을 갈망하고 또 富貴功名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나, 현실은 生者必滅·會者定離라는 진리 속에 순환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장소에 그가 서있다. 愴然하다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이치의 무정함과 서늘함을 부각시켜 詩的효과를 높였다. 인간에게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더 말할 나위가 없거늘 大義를 지키고자 목숨을 던진 포은을 향한 追崇의 마음을 시로 읊는다. 다른 시대를 살다간 지식인의 내면은 한 장소에서 서로 遭遇하고 있는 것이다.

麗末鮮初 혁명세력과 수호세력의 갈등은 革命論과 節義論으로 양상을 드러내는데, 사림파는 포은 순절 死六臣·生六臣 등의 節義派를 낳는 한편 집권세력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굳히며, 포은 계통의 성리학파는 의리사상을 특징으로 세종 조부터 정계에 다시 진출하여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의 전통을 남긴다.³⁹⁾ 후에 절의파의 春秋大義는 시대정

38) 金尙憲, 『淸陰集』 卷5, 「滿月臺 次車復元韻」.

신으로 살아나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정통이념의 根源處로 나타난다.⁴⁰⁾

포은은 당시 시대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넘어 유학의 높은 이상과 보편적 진리를 역사적 현실 속에 응용한 것이다. 당시 社稷의 責務를 한 몸으로 짊어졌던 大節은 단순히 고려왕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추구하는 살신성인의 대의를 위한 殉節인 것이다. 조선조에 그를 追尊한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⁴¹⁾ 다음은 초나라 대부 屈原과 賈宜에 대해 읊은 七言絶句 두 수를 살펴보자.

글 읽기를 중단하다

| | |
|---------|-------------------------------------|
| 屈原詞賦竟投湘 | 사부 읊던 굴평 끝내 상수에 몸 내던졌고 |
| 賈誼文章只傳梁 | 문장 높던 가의 단지 양 회왕의 태부였네 |
| 當日椒蘭與絳灌 | 그 당시에 시기했던 초란 강관 같은 자들 |
| 何曾辛苦究皇王 | 어찌 온갖 고생하며 황왕 탐구하였던가 ⁴²⁾ |

賈生

| | |
|---------|---------------------------------------|
| 漢文曾惜百金財 | 한 문제가 그 옛날에 백금 재물 아끼느라 |
| 不向宮中起露臺 | 궁중 안에 노대 짓지 않은 것은 잘했으나 |
| 却恨太倉藏腐粟 | 태창에는 곡식 묵어 모두 썩어 가는데도 |
| 長沙虛棄賈生才 | 장사에다 가생 재주 버려 둔 게 한스럽네 ⁴³⁾ |

굴평(BC 343년경~?)은 전국 시대 楚나라의 屈原을 가리킨다. 揚子江 중부 유역에 자리한 큰 나라였던 楚나라에서 왕족으로 태어나 그의 친척이었던 懷王의 신임을 받아 20대에 左徒라는 중책을 맡을 정도로 총명하였고 시와 문장 등 文辭에 뛰어났다. 조정에 들어가서는 임금과 國

39) 이동준, 『16세기 한국 성리학과의 철학사상과 역사의식』, 심산, 2007, p.104.

40) 이상성, 앞의 책, p.86.

41) 정성식, 「포은의리학의 이념적 특색」, 『東洋古典研究』 제10집, 동양고전학회, 1998, pp.285-286. 참조.

42) 金尙憲, 『淸陰集』 卷2, 「輟讀」.

43) 金尙憲, 『淸陰集』 卷2, 「賈生」.

事를 논하였고, 懷王의 신임이 아주 각별했으나 재능을 질시한 신하들이 왕에게 讒訴를 하여 懷王은 綈원을 멀리한다. 綈원은 이 무렵 근심에 잠겨 屈原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長篇 敘情詩인 「離騷」를 지어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었다.⁴⁴⁾ 곧 ‘근심을 만나다’라는 뜻인 ‘離騷’는 屈原이 조정에서 쫓겨난 후의 시름과 戀君의 情을 노래한 敘情의인 내용으로 ‘離騷經’이라고도 부르는데, ‘經’의 반열로 올려놓을 정도로 그의 충절은 사람들에게 기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綈원은 한 번 사면되었다가 다시 讒訴를 받고 쫓겨나 「漁父詞」를 짓는데, 어부와 綈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온 세상이 모두 濁하고 흐린데 나만 홀로 깨끗하고, 온 세상사람 모두가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구나” 하는 綈원의 말에 어부는 “滄浪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으면 되고, 그 물 흐리면 밭 씻으면 되는 것을!”하며 대답하는데 어부와 綈원의 대조되는 인생관이 감지된다. 결국 조국 楚나라가 秦나라에 망하자 鬱憤에 겨워 汨羅水에 投身하면서 歷代 충절의 상징으로 길이 남게 된다.

백여 년 후에 한나라에 賈生이 역시 같은 처지가 되어 湘江을 지나다가 「弔屈原賦」를 지어 강물에 던져 綈원을 조문했다. 綈원을 동정하며, 상실감과 울분에 찬 자신의 마음도 위로 받은 것이라 여겨진다. 賈生은 한나라 賈誼를 가리킨다. 가의는 문장 솜씨가 좋아 20세의 젊은 나이로 文帝를 보좌하여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펼쳤으나, 한나라의 개국 공신이던 絳侯 周勃과 潁陰侯 灌嬰 등의 모함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나 長沙王의 太傅가 된다. 그 뒤 다시 梁懷王의 태부로 옮겨졌는데, 양 회왕이 죽자 가의 역시 상심하여 죽으니, 그때 나이가 겨우 33세였다. 뜻을 펴지 못하고 절망 속에 투신한 綈원과 가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읊은 詩로써 청음은 가생이 綈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고난을 겪었던 두 사람을 추모하며 자신의 시에 자주 인용한다. 그러나 終局에는 목숨을 던져 충절을 지켰던 綈원은 流芳百世하고, 간신들은 遺臭萬年이니

44) 金尙憲, 『淸陰集』 註釋 참조.

그는 역사를 통한 교훈에서 心志를 더욱 굳혔을 것이다.

다음은 심양 억류기에 지은 작품에 형상화한 인물을 보자. 주로 한나라의 소무와 초나라의 종의이다. 1640년(인조 18) 12월 심양에 도착하여 다음해 病勢로 의주로 나가있을 때까지 조수이와 酬唱한 시를 엮어 『雪窩集』을 만들었는데, 조수이가 따로 엮은 『雪窩酬唱集』 序文에 조수이와의 억류생활의 苦楚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경진년(1640년, 인조 18) 겨울에 내가 창녕 조군 수이와 함께 조정의 명을 받고 북정에 와서 별관에 갇혀 있었는데,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범의 아가리 속에 든 고깃덩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 그 위태로움이 아주 심하였다. 벼슬길에 나아가고 멈춘 선후는 애당초 서로 요원하였으나, 갑작스럽게 无妄의 禍를 만나 똑같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위험에 빠졌으니 어찌 정해진 운명이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⁴⁵⁾

소경은 한나라 杜陵 사람 蘇武로, 그의 자는 子卿이다. 武帝 때 中郎將으로서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19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흉노의 선우가 갖은 협박을 하는데도 굴하지 않다가 당시에 흉노가 소무를 큰 움집[大窖]에 유폐하고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 눈이 내리자 소무가 눈을 씹고 가죽을 씹으면서 지냈다. 그러다가 다시 北海로 옮겨져서 양을 치며 지냈는데, 그때에도 한나라의 節을 그대로 잡고 있었다. 昭帝 때 화친이 되어 돌아왔다.

鍾儀는 초나라의 樂官 이름이다. 춘추 시대 쑤나라의 임금이 軍府를 시찰하다가 포로로 갇혀 있는 鍾儀를 보고서 “南冠을 쓰고 갇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 軍吏가 “초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온 자입니다.” 하였다. 진나라 임금이 그로 하여금 초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종의는 고향을 그리면서 자기 나라 토속의 곡조를 연주하였다. 진나라 임금이

45) 金尙憲, 『清陰集』 卷11, 「雪窩酬唱集序」, “歲庚辰冬 余與昌寧曹君守而 竝被朝命 來投北庭 囚于別館 經歲歷月 虎口之肉 其危已甚 仕止先後 始相遼遠 而遽遭無妄 同陷不測 豈非有定命也”

그 음악을 다 듣고는 슬퍼하면서 종의를 석방하게 하였다.⁴⁶⁾ 후세 시인들은 두 사람을 충절의 상징으로 作詩에 자주 인용한다. 문집명을 『설교집』이라고 한 이유를 자신을 子卿소무의 字의 風貌에 견주고 싶었음을 吐露한 것이 『雪窩酬唱集』 序文⁴⁷⁾에 실려 있다. 다음은 심양으로 끌려간 뒤 자신의 처지를 북해로 유배되었던 한나라 소무에 빗대어 읊은 시에서 그의 현실인식 내용을 보자.

淸명 날에 옛일을 생각하노라니 느낌이 있기에 읊다

| | |
|---------|--|
| 長安三月淸明節 | 장안성에 삼월 되어淸명절이 돌아오니 |
| 脩稷家家曲水湄 | 집집마다 냇가에서 계 모임을 하는구나 |
| 野草細侵遊客履 | 들판 풀은 노니는 객 신발 위를 살짝 덮고 |
| 山花先發向陽枝 | 산꽃은 또 남쪽 가지 먼저 꽃을 피웠구나 |
| 關中舊俗鞦韆戲 | 관중에선 예전 풍속 따라 추천 놀이 하고 |
| 洧外佳人芍藥詩 | 유수 박선 가인 있어 작약시를 읊는구나 |
| 勝事十年成一夢 | 즐거운 일 십 년 동안 꿈속의 일 되었거니 |
| 白頭千里楚囚悲 | 머리 세어 천 리 밖에 갇힌 초수 슬퍼하네 ⁴⁸⁾ |

이 시는 심양에서 맞은 淸명절의 感懷를 읊은 시이다. 『曆書』에 “淸명절은 춘분 후 15일, 斗가 丁의 방향을 가리키는데 바로 淸명이다. 이때 만물이 다 깨끗하고 淸명하다, 이때 공기가 신성하고 경치가 아름답다, 만물이 다 드러나서 그 때문에 이름을 얻다.”⁴⁹⁾고 되어 있다. 淸명절은 중국 주나라 때에 시작되어 2,5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력으로 4

46) 金尙憲, 『淸陰集』, 「解題」 참조.

47) “이에 저들이 비록 나를 곤경에 빠뜨렸으나 역시 나의 지킴은 빼앗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간간이 楚奏와 越吟을 읊조려서 꼭 막히고 무료한 뜻을 뿔는데, 조군이 문득 그것을 기록하여 한 질의 책을 만들고는 나로 하여금 그 책의 이름을 짓고 앞머리에 서문을 쓰게 하였다. 이에 내가 『설교수창집』이라고 제하였는데, 이는 대개 子卿의 풍모에서 興起한 것이다.”

48) 金尙憲, 『淸陰集』 卷11, 「淸明日懷舊有感」.

49) 『曆書』, “春分後十五日 斗指丁爲淸明 時萬物皆潔齊而淸明 蓋時當氣淸景明 萬物皆顯 因此得名”

월 5일 무렵으로 봄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모여 야유회와 들놀이를 가기도 하여 ‘풀을 밟는다’는 뜻의 ‘踏青’을 하기도 한다. 그네 타는 놀이를 하였으므로 ‘鞦韆節’이라고도 하며 버드나무가지를 머리에 꽂는 풍습도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청명절에 대해 作詩한 것이 고국에서 지은 시에 비해 심양에서 지은 시에서 多數 보이는데, 청명절은 중국 전통의 큰 명절이고 성대하게 치르며 중요시했던 명절이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시의 전반부는 고국에서 보냈던 일을 懷古하는 내용이며 꽃이 활짝 피어있는 화창한 봄 날씨 속에 들풀을 踏青하며 한껏 봄을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후반부는 關中에서 명절을 맞아 그네놀이에 즐겁고 洧水 가에서 청춘남녀가 시를 읊으며 즐거이 노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6구의 ‘洧水’는 河南省에 있는 물 이름으로 흔히 남녀 간에 정담을 나누는 곳을 뜻하는 장소로 쓰인다. ‘佳人’은 芍藥詩를 읊은 南齊의 문장가 謝朓를 가리킨다. 청명절을 맞아 그네를 타고 시를 읊는 사람들의 遊戲를 읊은 것이다. 8구의 ‘楚囚’는 초나라의 포로, 즉 종의를 뜻하는데, 심양에 억류되어 있는 청음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⁵⁰⁾ 타향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자신의 신세가 청명절이라는 들뜬 분위기에 대비되어 고향 생각이 처량한 심사로 이어진다.

그의 나이 70이 넘는 노구에 끌려갔으니, 한 때는 지난 날 뜻을 얻어 자신의 꿈을 펼치며 좋은 시절도 있었다. 돌아보면 한 때의 봄꿈처럼 아련하게 생각되어 인생의 무상함이 절절히 느껴진다. 만물이 살아난다고 하는 生動의 清明節에 대조되어 백발의 죄인 신세의 초라함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老臣의 회한과 고국을 향한 충정심이 식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2. 氣概의 士意識 - 常道과 權道

道學은 자기 성찰 의한 의리의 파악은 물론, 자기 실천까지 따라야만

50) 金尙憲, 『淸陰集』 註解 참조.

한다. 이런 점이 사대부로 하여금 대의를 위해 殉敎者의 자세를 취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목숨을 걸고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 그것에 헌신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확립시키려는 ‘性理學的 實踐儒學’임을 앞서 언급하였다. 또 의리정신을 익힌 조선조의 선비들이 몸소 당시 사회를 위해 獻身的 奉公의 행위를 실천하려 노력하던 학문이다.⁵¹⁾ 이러한 맥락으로 당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나타난 청음의 士意識을 살펴보자. 다음 기록이 심양 억류기에 청음의 氣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용호 등이 世子館의 앞에 와서 선생과 최명길을 불러 놓고 말을 전하기를, “이번에 바야흐로 크게 은전을 베풀어서 특별히 석방해 세자가 있는 館所에서 가까운 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이어 자물쇠를 풀었다. 용호가 선생 및 최명길로 하여금 서쪽을 향하여 황제의 명에 사은하게 하자, 최명길이 선생의 팔을 잡고 함께 하려고 하였다. 이에 선생께서는 허리에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는 끝내 예를 올리지 않았으며, 용호가 강요하였으나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명길만 홀로 서쪽을 향하여 사배를 올리고 꿇어앉아서 용호에게 사례하니, 용호가 눈을 부릅뜨고 선생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선생께서는 드디어 세자에게 사례하고서 그대로 질관에 머물렀다.⁵²⁾

서쪽을 향해 사배를 올리고 꿇어 앉아 謝禮를 하는 지천과 대조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는 청음의 행동은 두 사람의 克明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어느 때 인조가 經筵 자리에서 朋黨의 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명길에게 김상헌의 사람됨을 물었다. 이 때 최명길의 대답은

그는 度量이 좁은데 氣概는 剛直해서 좋은 길에 들어서면 천길 벼랑처럼 우뚝 솟아 있는 기상이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는 휘어잡아 고치는 의지는 없으니 그의 識見에 未洽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헌은 종묘 祭官이었을 때 무더운 6월에도 두꺼운 흑단령을 입고 온종일 재계했으며 임금이 병을 앓고 있으

51) 윤사순, 「한훤당의 선비 정신」, 『韓國儒學論究』, 현암사, 1985, p.65. 참조.

52) 『淸陰年譜』 卷2.

면 대궐문 밖에서 밤을 새운 뒤 아침 일찍 문안을 드리니 다른 사람은 따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⁵³⁾

라고 하여 ‘강직하나 편협하다’는 평을 하였다. 청음은 때로는 時流와 타협하지 않는 행동이 명예를 구한다는 오해를 받아 1638년 장령 柳碩 등으로부터 “김상헌이 혼자만 깨끗한 척하면서 임금을 팔아 명예를 구한다.”⁵⁴⁾ 라는 내용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淸으로 끌려가 청음이 보여준 행적은 최명길을 비롯한 신하들로 부터 그의 眞意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인조 역시 후에 청음의 眞意를 알아주는 대목이 있다.

전에 남한산성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한 짓은 온당치 않았다. 이번에 심양에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은 다 절개를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만은 끝까지 절개를 변하지 않았으며, 국가에서 내려 준 銀子까지도 쓰지 않고 돌아와서는 도로 바쳤다. (당초에 선생께서 심양에 들어갈 적에 조정에서 白銀을 하사하여 심양에 있으면서 필요한 데 쓰게 하였다.) 그러니 그 맑고 깨끗한 절조는 참으로 가상하다.⁵⁵⁾

유학의 현실인식론은 ‘時中’을 이상으로 여기지만, 사건에 따라 현실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常道와 權道로 다르게 나타나며 후세에 是非와 褒貶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역사인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常道과 權道의 문제는 역사 속에서 많은 논란을 낳는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 裏面에 時中의 문제도 그의 삶에 끊임없이 제기되며 그 자신에게도 끊임

53) 『仁祖實錄』 卷42, 「인조 14년 9월19일 庚申」, “尙憲量褊氣剛 故入得善處 有壁立千仞之氣象 其誤入處 亦無撓改之意 恐其識見不及也 因曰 尙憲爲宗廟祭官 六月着黑團領 終日致齋 爲內醫提調 劑御藥時 則必須具冠帶 使不得以他事來煩 然後劑進 問安時則亦曰 君父有病 何可退在私室 必須留宿闕門外 早來問安 此亦人所不及處也”

54) 『淸陰年譜』 卷2.

55) 『淸陰年譜』 卷2.

임없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잡영(雜詠) 다섯 수를 다시금 전운을 써서 짓다 중 4번째

| | |
|---------|---------------------------------------|
| 人生善道此爲難 | 인생에서 도 잘 지킴 그제 정말 어렵거니 |
| 達士分明識透關 | 달사들은 분명하게 관문 뚫을 줄 알았네 |
| 節義綱常扶植際 | 절의 지켜 인륜 강상 부식시킬 즈음이고 |
| 熊魚取舍重輕間 | 웅어 놓고 취사하며 경중 따질 사이이네 |
| 鍾儀確室琴聲怨 | 초 종의는 대실에서 금 뜯으며 원망했고 |
| 蘇武天山瓶乳艱 | 한 소무는 천산에서 양 키우며 고생 했네 |
| 一片素心如可表 | 한 조각의 평소 맘을 드러낼 수 있다면야 |
| 汗靑何慕袞華斑 | 한청 속의 화곤들이 부러울 게 뭐 있으랴 ⁵⁶⁾ |

首聯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도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세상에 달통한 현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境地라고 말한다. 頷聯에서 ‘熊漁’는 ‘곰 발바닥과 물고기’로 『孟子』, 「告子」의 典故를 인용하였다. 孟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나는 물고기를 먹지 않고 곰 발바닥을 먹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없을 경우 나는 삶을 버리고 義를 취하겠다.”⁵⁷⁾고 하였는데 지금이 義와 利를 명확히 따져 取捨할 때라고 하였다. 오히려 청음은 작금의 상황은 義와 利를 놓고 저울질할 여유도 없이 인륜대의를 확립해야 하는 급박한 시기로 보았다고 볼 수 있다.

頸聯에서 끝까지 節을 잡고 의리를 지킨 초나라의 종의와 한나라의 소무를 들어 의리를 취해야 할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尾聯의 ‘汗靑’은 史策을 뜻한다. 옛날에 竹簡을 만들 때 글을 쓰기 쉽고 종이 먹지

56) 金尙憲, 『淸陰集』 卷11, 「雜詠五首 復用前韻」 其四.

57) 『孟子』 「告子上」, “魚 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않도록 구워서 기름[汙]을 냈으므로 그렇게 칭한다. ‘華袞’은 옛날 왕공·귀족이 입던 화려한 의복으로, 전하여 高官大爵의 뜻으로 쓰인다.⁵⁸⁾ 大義를 지키며 살고픈 자신이 뜻이 지켜질 수 있다면 그 어떤 화려한 영달도 부림지 않다는 剛直한 士意識이 느껴진다.

당시에 정승 崔鳴吉 역시 잡혀가서 복관에 구류되어 있었다. 최명길 이 시를 지어 經·權의 뜻에 대해 말하기를, “끓는 물과 언 얼음이 모두 물이고, 가죽 옷과 갈포 옷이 모두 옷일세”⁵⁹⁾라고 하며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우국의 衷情心은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자 선생께서 그 운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를,

‘講經權有感’ 시의 운을 차운하다

| | |
|-------|----------------------------------|
| 成敗關天運 | 성패는 다 하늘 운에 달려 있거니 |
| 須看義與歸 | 의에 맞는 것인가만 보아야 하리 |
| 雖然反夙暮 | 제 아무리 아침저녁 바뀐다 해도 |
| 詎可倒裳衣 | 어찌 옷을 뒤바꾸어 입어서 되랴 |
| 權或賢猶誤 | 권도 쓰면 현인도 혹 잘못될 거고 |
| 經應衆莫違 | 정도 쓰면 못사람들 못 어기리라 |
| 寄言明理士 | 이치 밝은 선비에게 말해 주나니 |
| 造次慎衡機 | 급한 때도 저울질을 신중히 하소 ⁶⁰⁾ |

언행은 義에 따르고 성패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 力說했다. 변하는 세상이지만 權道를 신중히 생각해서 써야 후세 사람들이 본받는다고 하였다. 권도를 잘못 쓰면 자신은 時宜에 적절하다 여기나 자칫 도의에 어그러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백성들이 행여나 잘못 판단하고 따를지 않을까 우려한다. 동시대에 삶을 살면서 國難을 함께 맞고 대처했던 지천 최명길과 청음 두 사람의 현실인식의 시각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

58) 金尙憲, 『清陰集』, 「註解」 참조.

59) 崔鳴吉, 『遲川先生集』 卷3, 「用前韻講經權」, “靜處觀群動 眞成爛漫歸 湯水俱是水 裘葛莫非衣 事或隨時別 心寧與道違 君能悟斯理 語默各天機”

60) 金尙憲, 『清陰集』 卷12, 「次講經權有感韻」.

러나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성리학자 청음과 현실과 실질을 중시했던 지천은 綱常과 權道의 입장에서 대립적인 처세를 보였지만 내면세계에서, 나라를 위하는 충정의 마음에서는 두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됨을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기개는 임금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데, 인조에게 올린 疏劄에서 살펴보자. 다음은 士氣를 꺾지 않고 言路를 열어둘 것을 부탁하는 劄子이다.

혹 말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작은 실수를 인하여 엄한 질책을 내리기도 하고, 혹 언론의 지적이 매우 절실한 것을 인하여 엄한 견책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에 한때의 사기가 꺾여 삭막해졌습니다. (중략) 그리하여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보신하는 좋은 계책으로 삼고, 일을 회피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선비들은 모두들 장탄식을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의 일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기록하고 밝은 성상께서 위에 계시는데 다시 이러한 기상을 보게 될 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신들은 몹시 통분스럽습니다.⁶¹⁾

군왕에게도 굴하지 않는 言辯에서 신념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서늘한 士意識을 감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의 거침없는直言은 왕의 심기를 자주 뒤흔겨 외직을 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國難 속에서 발휘되는 청음을 비롯한 도학파의 綱常的 의식 체계는 후에 우리 민족의 정신에 불을 지피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연결되고, 의리정신은 의병정신으로 이어져 한말 민족적 자존감이 흔들리던 시대에 민족적 주체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이념적 바탕으로 승화되었다.⁶²⁾

61) 金尙憲, 『淸陰集』 卷18, 「憲府에 있으면서 물 흐르듯이 諫言을 따라 주기를 청한 차자[憲府請從諫如流劄], “或因措語之小失而峻責之 或因言論之剴切而嚴譴之 一時士氣 摧沮索漠 … 囁嚅中止 逡巡思退 循默爲保身之良計 避事爲涉世之長策 有志之士 莫不太息流涕 知國事之不可爲也 豈料聖明在上 而復見此等氣象也 臣等竊痛焉”

62) 이동준, 앞의 책, pp.53-54.; 오석원, 앞의 논문, 1992, pp.49-51. 참조.

3. 復讐雪恥의 自主意識

성리학이란 자기성찰로부터 출발한다. 다른 사람의 자주성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자주성도 침해당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불의와 무도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항쟁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성리학은 자주주의식을 고취하는 주체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성리학은 의리사상을 발휘하여 국내적으로도 사회의 정의를 주창하였을 뿐 아니라 외침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전개하였다. 성리학적 자주주의식이 역사적으로 충렬정신으로 드러난다.⁶³⁾ 오랑캐라 여겼던 후금과 兄弟之義를 넘어 君臣之義를 맺은 사건은 春秋大義論에 입각한 조선 사대부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왕에게 올린 劄子에 인조가 후금의 사신을 만나보는 禮를 논하였는데 그 차자에 대략 이르기를,

삼가 들으니, 상께서 금나라의 差人을 불러서 보실 때 逆奴 仲男에게도 아울러 의자에 앉도록 허락하셨다고 하기에, 신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바, 묘당의

舊韓末 衛正斥邪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正과 邪, 正道와 邪道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도는 참된 인간의 본질을 개인이나 사회에 치우침 없이 적정한 中道의 방법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본질 파악이나 실현 방법에 있어 어긋나거나 치우친 것을 邪道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 현실로서의 역사적 상황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斥邪의 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동시에 보편성을 갖고 있어 유학은 이러한 보편적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斥邪의 대상은 先秦時代는 楊·墨 등의 諸家思想, 宋代에는 불교와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關異端論을 전개하며, 송대 도학을 수용한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주자학과 입장을 달리하는 양명학을 비판 대상으로 삼았으며 구한말 西學이 전래된 이후 척사의 대상은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을 분별하지 않고 서양일체를 배척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도학과의 저항의식은 이항로의 洋貨排斥論과 기정진 洋物禁斷論 등의 상소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63) 이동준, 앞의 책, pp.53-54. 참조.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이웃나라의 사신을 불러 보시는 것은 그 禮가 대단히 중한 것으로, 어실프게 節目을 講定함으로써 상대방 사람들이 능멸하도록 꼬투리를 만들어 주어 나라에 무궁한 수치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南宋 때에 국가의 형세가 부진하여 오랑캐들이 요구하는 것을 감히 조금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끝없이 땅을 떼어 주다가 畢竟에는 再拜하기에 이르렀고, 끝없이 재배하다 보니 마침내 신하라고 칭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러, 천고의 한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전 시대 역사의 거울인 것으로, 후세 사람들이 경계해야 마땅한 바입니다.⁶⁴⁾

후금의 사신 仲南을 ‘오랑캐의 禮’가 아닌 ‘손님의 예’로 대한 것을 논한 대목은 華夷論에 입각한 논변으로 禮貌의 尊卑로서 ‘오랑캐를 대하는 법’을 내세워 나라의 체통을 세우려는 민족적 자존의식의 發露이다.

감의(感意) 4수 중 3수

| | |
|---------|------------------------|
| 扈蹕前年駐漢南 | 지난해에 어가 따라 남한산성 머무를 땐 |
| 會稽遺恥到如今 | 회계 땅의 남은 수치 오늘까지 온 듯했네 |
| 殘生不是貪生者 | 살아남음 본디 목숨 탐한 것이 아닌데도 |
| 尙在人間負宿心 | 아직 인간 세상 남아 지난날 맘 저버렸네 |

| | |
|---------|-------------------------|
| 國破家殘身落南 | 나라 집안 다 깨지고 몸은 남쪽 유랑하니 |
| 逢人羞愧說當今 | 사람 만나 오늘날 일 말하기가 부끄럽네 |
| 柴門倚杖看新月 | 사립문에 막대 놓고 새로 뜨는 달 보거나 |
| 誰識山中此老心 | 산속 사는 이 늙은이 속마음을 누가 알리오 |

| | |
|---------|--|
| 種蠡高名揭斗南 | 종려 두 분 높은 이름 북두 남쪽 걸렸으나 |
| 古人何必勝於今 | 옛사람이 어찌서 꼭 지금 사람보다 나으랴 |
| 誰知西磻菴中客 | 누가 알리오 서쪽 시내 암자 속에 머무는 객 |
| 獨抱當時管樂心 | 그 당시에 홀로 관악 마음 품고 있는 줄을 ⁶⁵⁾ |

64) 『淸陰年譜』 卷2.

65) 金尙憲, 『淸陰集』 卷3, 「感意」 其一~其三.

3번 제 시 1구의 ‘種蠡’는 춘추 시대 때 越王 句踐의 신하인 文種과 范蠡이다. 이 두 사람은 구천을 보좌하여 뭇나라를 쳐서 會稽의 치욕을 씻게 했다. 4구의 ‘管樂’은 管仲과 樂毅를 가리킨다.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고, 악의는 전국 시대 燕나라의 장수로 韓·魏·趙·燕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제나라를 쳐서 70여 城을 빼앗은 인물이다.⁶⁶⁾ 種蠡와 管樂처럼 復讐雪恥를 다짐하는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는 ‘삼전도 굴욕’을 越나라의 會稽之恥에 비유하며 일생동안 치욕을 잊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다. 당시 직책이 예조 판서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자책감에 수치심은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후에 남한산성에서 나가는 인조를 수행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豐岳問答」을 지어 그 辯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문기를 “大駕가 남한산성을 나갈 때에 그대가 따르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기에, 내가 응답하기를 “大義가 있는 곳에는 털끝만큼도 구차스러워서 안 된다. 나라님이 사직에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신하의 의리이다. 간쟁하였는데 쓰이지 않으면 물러나 스스로 안정하는 것도 역시 신하의 의리이다. 옛 사람이 한 말에, 신하는 임금에 대해서 그 뜻을 따르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士君子의 나가고 들어앉은 것이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예의를 돌보지 않고 오직 명령대로만 따르는 것은 바로 부녀자나 환관들이 하는 충성이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다.” 하였다.⁶⁷⁾

원수를 받들면서 상국을 범하였을 경우 극언을 하고 간쟁하는데 쓰이지 않으면 물러나 있는 것도 의리이다. 의리에 따를 뿐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士意識이다. 인조를 산성 밖으로 扈從하지 않은 비난에 대한

66) 金尙憲, 『清陰集』, 「解題」.

67) 『孝宗實錄』 卷8, 「3년 6월 25일 乙丑」, “大駕出城之日 子不從何也’ 余應曰: ‘大義所在 一毫不可苟 國君死社稷 則從死者 臣子之義也 爭而不用 則退而自靖 亦臣子之義也 古人有言 臣之於君 從其義 不從其令 士君子出處進退何常 惟義之歸 不顧禮義 惟命是從者 乃婦寺之忠 非人臣事君之義也’”

辯을 군지는 오직 義를 따를 뿐이지 명령만 따르는 것은 盲從이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는 議論을 펼쳤다. 義理에 입각하여 의리가 아니라 물러나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反淸의 태도는 청의 미움을 받고 심양 押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의 ‘復讐雪恥의 자주정신’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후에 한말 도학파의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⁶⁸⁾

IV. 結語

이상으로 청음 김상헌의 역사의식을 詩 작품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에 나타난 그의 역사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째 절의 사상 - 垂範的 인물의 형상화, 둘째 氣概의 士意識 - 常道와 權道이며, 셋째 復讐雪恥의 自主意識이다.

첫째, 청음은 詩文學에서 성리학적 垂範的 인물을 모티브로 形象化한 작품을 다수 지었는데 포은 정몽주, 주나라 백이·숙제, 초나라 굴원과 한나라 가의, 심양 押留期에는 한나라 소무, 초나라 종의에 빗대어 시를 지었다. 節義的 인물에서 삶의 고난에 동병상련하는 맥락의 작품을 통해 절의 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둘째, 詩 작품 속에 나타난 곳곳한 선비의식을 살펴보았는데 常道와 權道의 歷史觀을 지친 崔鳴길에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現實과 實利를 중요시하는 陽明學的 사교의 遲川과 原則的 朱子學徒 청음은 비록 表出樣相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하는 衷情心은 하나였다.

셋째, 兩難 후 청나라에 겪었던 굴욕은 詩 안에 여실히 투영되는데, ‘敗戰의 수치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의 이른바 ‘復讐雪恥’의 자주정신이였다. 성리학자들은 報恩을 목숨처럼 여기고 모욕을 준

68) 오석원, 「한말 도학파의 역사의식」, 『大東文化研究』 제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p.249. 참조.

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학문적 신념으로 여긴다. 명나라에 再造之恩과 청나라에 대한 復讐雪恥가 그러한 線上의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절의를 지키는 공도를 위해 私利를 멀리하는 것으로 욕망의 속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에 ‘時中의 道’를 갖기 어렵게 하는 현실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으로 유교의 修養論이 존재하고 필요한 이유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역사 속의 ‘綱常’과 ‘權變’의 끊임없는 줄타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삶의 비애를 토로한 내용의 시를 보자.

| | |
|-------|---------------------------------|
| 鑄官謫滿百 | 쫓겨나서 유배된 게 백 번도 넘고 |
| 度嶺里逾千 | 고개 넘어 온 길 멀어 천 리도 넘네 |
| 身屈何傷道 | 몸 굽혀서 어찌 도를 손상시키랴 |
| 心閑是得仙 | 마음 한가하면 바로 신선인거네 ⁶⁹⁾ |

관직에 있을 때 거침없는 言辯으로 왕과 大臣들에게 미움을 받아 외직으로 전전하며 至難했던 삶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고통할 수 없었던 학자로서의 良心, 그 裏面에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한 인간의 鬱鬱함도 感知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 仙境을 찾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 시는 우리에게 그의 삶의 총체적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청음 知人들에게서 그에 대한 그러한 인간적인 측은함을 서술한 詩文이 다수 발견된다. 평생 교유했던 文人 張維도 그를 언급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념을 따르는 청음에게 존경심을 내비침과 동시에, 고결한 절개와 直言으로 絶島와 要塞로 쫓겨 나간 적이 많았다고 하며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한다.⁷⁰⁾

69) 金尙憲, 『清陰集』 卷4, 「次李直講逢春丈韻」 其二, 首聯·頷聯.

70) 장유는 청음에 대한 존경심을 다음 글에 남긴다. “대저 선비는 오직 곧은 道에 입각하여 행동을 하고 목숨을 바쳐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신념대로 끝까지 추구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간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累를 끼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디를 간들 평탄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겠

유학의 ‘尊天理去人慾’의 수행은 인간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인내를 수반한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고 天理를 얻어 公道를 실천하는 修行은 물을 逆行하는 것처럼 苦難을 수반하기에 울적한 감정은 필연적 정서이다. 孔子의 ‘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한 이유로 潘館에 억류되어 있을 적에 일찍이 스스로 墓誌를 짓고는 이어 墓誌銘⁷¹⁾에 평생 대의를 따르는 자신의 삶의 悔恨과 후세 사람들 올바르게 평가해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結語를 임금에게 올린 「遺疏」로 갈음하고자 한다.

마음속으로는 단지 士類를 顯揚하고 綱維를 진작시켜 새로운 교화를 펴는 데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서 뜻을 조금도 펴 보지 못하고 성상의 은덕을 저버린 채 낭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중략)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처음 왕위를 물려받던 때에 품었던 뜻을 더욱 더 가다듬으시고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을 버리지 마시어, 선한 사람을 등용하여 훌륭한 정치를 이루고 실제적인 덕을 잘 닦아 왕업을 넓히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방이 억만 년토록 무궁할 아름다움의 기반을 크게 닦으신다면 신은 비록 죽어 구천에 가 있더라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⁷²⁾

는가. 그런데 나의 안목으로 지금의 세상을 살펴보면, 오직 淸陰公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중략) 벼슬길에 나선 지 30년 동안 조정에 편안하게 있어 본 것이 몇 년도 채 못 되는데, 위에서 진출시킬 때에는 金闈玉署(漢나라 때의 金馬門과 玉堂殿으로서 후세의 翰林院을 말함)에 몸을 담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반면, 일단 축출할 때에는 남쪽 변방의 絶島로부터 북쪽 지방의 요새지에 이르기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게끔 하였으니, 시대의 운세가 퍼지고 막힐 때마다 공은 번번이 은총과 모욕이 가해지는 첫 번째 대상의 인물이 되곤 하였던 것이었다.” (張維, 『谿谷先生集』 卷6, 「청음이 경사에 갈 때 전송한 글」[送淸陰朝京師序].)

- 71) 『淸陰年譜』 卷2, “지성은 금석에다 맹세하였고 대의는 일월에다 매달았다네. 하늘과 땅이 굽어 살피시거니 귀신에게 질정할 수가 있다네. 옛 도에 합하기를 바랐건마는 오늘날에 도리어 어긋났구나. 아아 백대 세월 흐른 뒤에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 알아주리라.”
- 72) 金尙憲, 『淸陰集』 卷22, 「遺疏」, “區區之心 只欲明揚士類 振舉綱維 以補新化之萬一 不幸事與心違 志未少伸 辜負聖德 狼狽而歸 … 伏望殿下 益礪初服之

평생 綱常을 확립하며 나라를 지키고자하였던 老臣下의 衷情어린 마지막 上訴이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왕에게 善政을 당부하며 德業을 이루어 나라가 영원한 強國이 되길 바란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질적 편리함을 주었으나, 개개인의 행복에 관한 문제를 논한다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내면적 혼란이 불안감을 야기하며 사회 諸問題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욕망을 뿌리로 하는 이익 중심의 가치관은 인간을 삶을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게 하며, 현대인들은 綱常과 權道의 기로에서 뚜렷한 소신 없이 흔들리고 있으니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해지는 때이다. 그 역시 시대의 大勢를 모를 리 없었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으니 이익에 따라 쉽게 뜻을 뒤집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한 것이다.

<參考 文獻>

- 『論語』 『孟子』 『中庸』 『小學』 『曆書』
 『仁祖實錄』 『孝宗實錄』
 金尙憲, 『清陰集』, 『韓國文集叢刊』 77, 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宋子大典』, 『韓國文集叢刊』 108~116, 한국고전번역원.
 張 維, 『谿谷先生集』, 『韓國文集叢刊』 92, 한국고전번역원.
 正 祖, 『弘齋全書』, 『韓國文集叢刊』 262, 한국고전번역원.
 崔鳴吉, 『遲川先生集』, 『韓國文集叢刊』 89, 한국고전번역원.
 김상헌, 『國譯 清陰集』,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96.
 박영규, 『朝鮮王朝實錄』, 들녘, 2004.

志 不替好賢之誠 登進善類 以出治道 克修實德 以恢大業 丕基我東方億萬年
 無疆之休 則臣雖在九原 庶無遺恨 臨窆氣短 不知所云 臣不勝銜恩戀闕泣血馳
 情之至 謹味死以聞”

- 김경미, 「淸陰 金尙憲 詩 研究」, 『연세어문학』 21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 김옥규, 「한문학의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재구, 「조선조 소학주의 전통연구」,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제39호 성리학일반(1), 불함문화사, 1996.
- 김하윤, 「淸陰 金尙憲의 漢詩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배상현, 「기호예학의 성립과 발전」, 『한국유학사상논문선집』 제39호 성리학일반(1), 불함문화사, 1996.
- 오석원, 「19세기 한국도학과 의리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 「한말 도학과 의리의식」, 『大東文化研究』 제2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4.
- 윤사순, 「한훤당의 선비 정신」, 『韓國儒學論究』, 현암사, 1985.
- 이동준, 『16세기 한국 성리학과의 철학사상과 의리의식』, 심산, 2007.
-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심산문화, 2003.
- 이상익, 「우암 송시열의 의리의식과 화서학과」, 『우암논총』 5집,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11.
- 이원균, 『조선시대사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정성식, 「포은 의리학의 이념적 특색」, 『東洋古典研究』 제10집, 동양고전학회, 1998.
- 하진규, 「淸陰 金尙憲의 生涯와 文學」,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Chungeum's historical awareness / Song Hee Kyung**

Chungeum, Kim sanghyun(1570~1652 A.D) belonged to Seoin faction in the political world, leading political situation as a leader of the faction, Chungseo against Gongseo after enthroning the King, In-jo. In addition, he took lead the academic world as the head of Neo-Confucianism with an inclination toward Giho School in those days. East Asia where Chungeum lived between late 16th century and mid- 17th century was caught in turbulent times when international order was reorganized. Born in time of the king Seonjo's rule, he was a character representative of an era leaving his noticeable footprints in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with firm conviction and step, getting involved in the following big incidents: political party strife formed from the early years of Chosun dynasty, Japanese Invasion of Korea, enthronement of the king, Injo, Yi Gwal's rebellion, the Chinese Invasion of Chosun, the Manchu war, and so on.

Meanwhile, he insisted the rejection of peace to the end, tearing the surrender documents against Choi, Myung-Gil who maintained coinage in the vortex of two wars,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 Manchu war, during time of rules of kings, Kwanghye and Injo. Due to strong awareness of the rejection of peace, he might be evaluated with disregard in academic achievement, but the king Jeong-jo ever rated high about his studies and sentences along with his integrity early in the book, Hongjaejeonseo. In addition to this, a massive amount of collection of works, forty volumes and sixteen books proving both political standing and outstanding idea fully,

* Daejeon Jijok High School, Teacher / 1013shk@hanmail.net

Chungeum stood firm in the fields of both politics and study as a doer who tried to fulfill academic idea with clear conviction.

Although he repeated resigning and remaining in office since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he was engaged in government service all his life. And he experienced honor and disgrace on his country on being in jeopardy. His belief emerges from a set of actions he showed every time his nation was in a great crisis. Sometimes he was criticized because he looked for honor by himself, but his real intention was acknowledged through his deeds since he was sent to the capital of Qing dynasty, Simyang, under escort.

The writer examined Chungeum's historical awareness on the basis of the poetical composition among his literary works he left. His historical awareness system was not irrelevant to his world of literary.

Ethics as practical confucianism was characterized by loyalty and integrity, leading confucian tradition at that time. Chungeum realized reality on the basis of this confucian way of thinking. He made true appearance of an intellectual who tried to practice the path of justice rather than self-interest, behaving himself sincerely to his academic belief throughout his life.

【Key words】 Neo-Confucianism, ethics, retainer who rejected peace, historical awareness, loyalty

투고일 : 10월 11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